“암 함께 이겨요”…장성군 자조모임 큰 호응

백암산서 11월까지 환자·가족 함께하는 숲속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이 암 경험자 자조모임으로 운영하는 ‘숲에서 찾는 힐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백암산 숲속에서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암 경험자 자조모임(self-help group)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이 마련한 자조모임은 암 경험이라는 공통적인 아픔을 겪은 환자와 가족 등 지역민들이 숲 속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각종 치료정보와 체험담 공유를 통해 암 극복 의지를 다져나가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내장산국립공원과 연계해 암 경험자 자조모임인 ‘숲에서 찾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백암산에서 위암 경험자와 가족 20여명이 함께하는 ‘숲에서 찾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암 발병이라는 같은 아픔을 겪은 암 환자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는 숲속 치유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숲속 명상, 호흡법, 다도체험, 마음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암 경험자와 가족들을 다독이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암 치료 정보와 각자 겪은 체험담을 함께 나누며 암 극복 의지를 다졌으며, 특히 장소를 숲속으로 옮겨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진행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장성군 보건소는 이번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암 경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암 종별 웃음치료, 건강체조, 공예교실, 숲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암은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병이 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고, 치유되는 시간을 갖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현재 850여명의 암 경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5대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암 생존자 지지 프로그램 등 암 경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문화생태도시 주민들이 만들어가요

담양문화재단 ‘담빛 라디오스타’ 운영진 모집

담양군문화재단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제작하는 라디오 방송 ‘담빛 라디오스타’에 참여할 DJ, 기자, 작가 등 운영진을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학생, 일반부로 구분된다.

라디오 DJ는 친근한 이웃의 목소리로 지역 내 소식을 알리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옛 추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작가와 기자는 지역 내 문화소식을 취재 및 인터뷰하고 SNS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지역 내 또 하나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진 활동 기간은 1년이며, 2020년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심화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수료증과 함께 운영진 명함이 발급된다. 또 이들에게는 담양 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우수 활동가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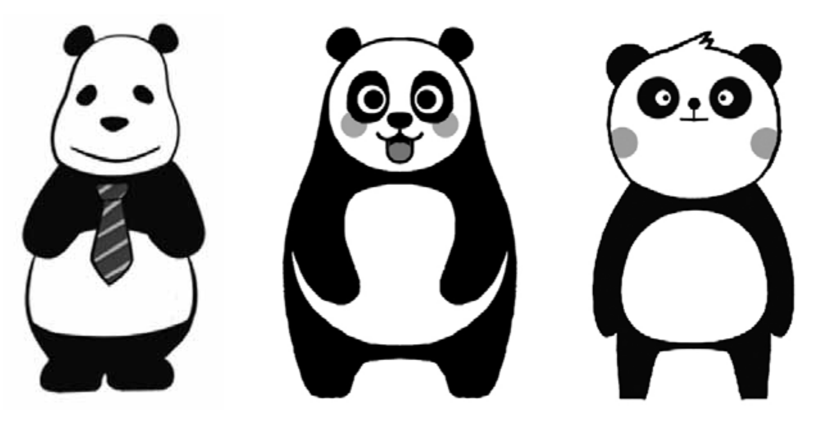
참여 희망자는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damgyangcf@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10주간의 라디오 제작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타 사업과 관한 사항은 문화생태도시팀(061-380-3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경희 담양군 문화생태도시팀장은 “라디오 방송 제작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며 “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음악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는 ‘담빛 라디오스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담양군 마스코트 뽑아 주세요

팬더 캐릭터 후보군 선정 대나무축제 기간 여론조사 군 상징 캐릭터 확정 예정

담양군은 “상징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한 선호도조사를 오는 7일까지 제19회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대나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동물인 판다(팬더)를 모티브로 캐릭터 개발에 나서 3개 캐릭터 후보군〈사진〉을 선정했으며, 이번 선호도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 상징 캐릭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는 행사장 내 선호도조사 운영부스에서 진행되며, 각 캐릭터들은 축제기간 중 무대 인사를 비롯한 각종 축제프로그램, SNS 등을 통해 대나무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상징캐릭터의 개발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추후 부수적인 관광상품, 캐릭터상품 개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담양군의 얼굴이 될 캐릭터 선정에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장성문예회관 16일 판타지 마술쇼 공연

장성문화예술회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 마술쇼를 무대에 올린다.

장성군은 “오는 16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 관객을 위한 퍼포먼스 판타지 마술쇼 ‘트랜스포머 마법열차’ 공연을 두 차례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트랜스포머 마법열차’는 어린소녀의 꿈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 마술, 대형 일루젼 마술, 레이저쇼, 미디어퍼포먼스를 결합한 스토리 마술쇼다.

24개월 이상 어린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16일 오후 3시와 7시 두차례 열린다. 공연 예매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culture.jangseong.go.kr)과 전화(061-390-8475, 390-8476)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3000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들이 관람하기 좋은 공연으로 준비했다”면서 “마술과 레이저쇼 등이 가미돼 어린이의 몰입도가 높은 공연으로, 재미와 감동은 물론 어린이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한우농가 송아지 릴레이 기증 사업

화순군은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릴레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화순군은 오는 9월 제11회 자연속愛 한우송아지 능력평가대회에서 소규모 한우 사육 17농가를 대상으로 암송아지 기증식을 통해 ‘한우송아지 릴레이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암송아지 1두(300만원 상당)를 기증(분양)하고, 그 암송아지가 어미소가 돼 첫 암송아지를 낳으면 다른 소규모 한우농가에 그 암송아지를 분양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첫 송아지가 수송아지인 경우에는 판매 후 암송아지를 구입해 새로운 대상자에게 기증하게 된다. 20두 미만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희망자는 오는 6월말까지 한우협회화순군지부(061-374-5558)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의를 통해 7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061-379-3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친환경 전기버스 담양 관광지 누빈다

3대 도입…대나무축제 기간 시범운행후 확대 계획

담양군이 이달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사진〉를 운행한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3대를 도입해 대나무축제 기간 중 셔틀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주요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대나무박물관 등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생태도시’와 ‘문화관광 명소’로서의 담양군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버스 외관 디자인으로 접목해 담양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앞으로는 식영정, 송광정, 면앙정 등 가사문화유적 문화관광 명소까지 권역을 확대해 방문객들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버스 운행으로 읍내 주차난 해소와 대기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상 전기버스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미세 먼지와 매연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싸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1260 – 2번지 – 90평
1376 – 2번지 – 67평
1351 – 4번지 – 182평
1352번지 – 58평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싼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중동 락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